

【신간소개】

한국인에게 만주는 무엇이었는가

－ 이명종,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

이 진 아*

I.

이명종 선생님의 신간인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한양대학교 출판부, 2018)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와 박사학위논문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 연구』(2014)를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근대 시기 한국인에게 만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의 오랜 연구의 지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인의 만주 인식을 통해 한국 근대사를 새롭게 읽어보고자 시도한 것인데, 이는 “한국인이 근대 민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간 길이 만주 또는 만주족이라는 타자와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비로소 개척될 수 있었다는 사실”(442)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한국인이 만주라는 타자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온”(444) 역사 그 자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17세기 청조의 등장 무렵부터 20세기 만주국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만주에 대해 보여주었던 담론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저자는 한국인의 만주 인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인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등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한국인의 만주 인식을 지배하는 관념들인 ‘만주=고

* 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연구원.

토’ 의식, 간도영토론, ‘만주=단군강역’론, 조선민족자치구의 주장 등을 광범위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매우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만주를 기자강역, 간도 영토, 단군강역, 민족자치구 등으로 인식해온 관념들은 한국인의 만주 인식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관념들이 각 시대의 현실적인 과제였던 존화양이, 주권독립, 독립근거지 건설, 민족평등 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상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로서의 만주”와 “고토로서의 만주”가 서로 착종되면서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던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⁸⁾. 즉 저자는 근대 시기 만주라는 공간을 둘러싼 현실과 관념, 한국인의 삼각관계에서 존재했던 상호연관적인 역사를 드러냄으로써, 한국인이 만주라는 타자를 통해 응시할 수 있었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II.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의 구체적인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오랜 시간을 다루는 이 책에서는 이를 통해 만주를 배경으로 하여 지리적 영토로서 현실과 지(知)의 관념, 그리고 행위자로서 한국인이 맺었던 중층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다.

제1장 ‘병자호란’ 이후 만주 고토의식의 전개

‘만주(滿洲)’ 명칭의 탄생

‘만주족=오랑캐[夷狄]’ 의식의 등장

‘만주=고토(故土)’ 의식의 출현

만주 고토 회복 의식의 생성
만주 이주와 간도 영토 문제

제2장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과 만주 표상
만주의 정세와 이주 상황
한국인의 영토의식을 각성시키는 간도
단군의 강역으로 등장하는 만주
이주지와 상품 시장으로서의 만주

제3장 1910년대 만주 이주와 만주식민지론
망국 조선인의 만주 이주
조선인 빈농의 만주 유랑
《매일신보》 등의 만주 이주 장려론
장지연 등의 만주식민지론

제4장 1910~1920년대 ‘만주=단군강역’ 담론
‘백두산=단군발상지’론
‘평양(단군 도읍지)=만주’론
‘만주=단군강역’론
‘만주족=단군후예’론
‘만주=기자강역’설과 소중화사상의 부정

제5장 1920년대 후반 재만조선인문제의 담론화
조선인 ‘무산자’의 만주 이주
재만조선인문제의 발생
재만조선인문제의 원인론
재만조선인문제의 해결 방안론

제6장 ‘만주사변’ 이후 재만조선인문제 인식의 분화
‘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문제
‘만주국’ 성립과 재만조선인문제
‘만주국’ 재만조선인 정책에 대한 비판
‘만주국’에 대한 협력적 인식

저자에 따르면,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은 크게 여섯 시기의 질적 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먼저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는 반청송명의 조선중화론 입장에서 ‘만주=고토’의식이 대두되었다. 이어서 대한제국기에는 만주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간도영토론과 ‘만주=단군강역’론 등이 등장하였다. 1910년대에는 ‘만주=단군강역’론이 만주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서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만주식민지론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만주=단군강역’론과 ‘만주족=단군후예’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만조선인 문제가 만주 인식의 새로운 관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나아가 만주사변 및 만주국 시기에는 재만조선인의 생활 안정과 자치구 설립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여러 조선인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주류를 이루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인의 만주 이주를 촉진하면서 제국일본의 대륙진출을 찬미하는, 즉 만주국에 협력하는 새로운 인식이 나타났다.

17세기 이후 한국인은 시대의 변천 및 현실적 과제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만주라는 대상을 관찰하고 인식하여 왔다. 즉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이라는 과정은 언제나 한국 사회의 내적 변화 혹은 만주로 이주하는 한국인이 증가하는 현상과 함께 진행되었던 것이다. 만주 땅에 대한 인식으로는 ‘만주=고토’ 의식, 간도영토의식, 단군강역 의식, 독립근거지 의식, 이주식민지 의식, 민족자치구 의식 등이 전개되었고, 만주의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는 오랑캐[夷狄] 의식, 단군 동족 의식, 민족 평등 의식 등이 발달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의식들은 시대에 따라 복수설치, 주권회복, 독립운동, 조선인 박해, 농민구휼화 등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상적 실천으로 작동되기도 했다.

요약해 보면, 조선 후기 만주를 오랑캐라는 타자로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된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은 ‘만주=단군강역’론과 ‘만주족=단군후예’론처럼 만주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재만조선인 박해 문제를 거치면서 만주를 자기와 평등한 세계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리고 민족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한 만주 인식을 얻고서야 비로소 만주국 시기의 한국인은 자신의 정치경제적 모순의 산물인 조선인 빈농문제, 즉 재만 조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Ⅲ.

근대 한국인이 만주라는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접근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질문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근대 시기에 구축된 다양한 문화장치의 메커니즘은 서양/동양, 일본/아시아,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등 이항대립의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 권력의 구조 안에서 보는 주체가 보여지는 객체를 가시화하고 관찰하면서, 새로운 “원시적 자아(primitive selves)”¹⁾를 발견하는 것이 제국과 식민지의 지배질서가 만들어지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그렇다면 근대 한국의 수많은 문화 엘리트들이 일종의 ‘고토(故土)’로서 만주를 오랜 시간 응시하면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특정한 만주 담론을 계속해서 생산해 냈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는 신채호와 박은식, 장지연 등 당시 한국의 엘리트들이 국민국가(nation state)의 구성원으로서 내셔널 아이덴티티(national identity)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거나, 아니면 이들이 스스로를 관찰자이자 관찰 대상으로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시성의 경계 공간”²⁾으로 만주를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담론 구성물로서의 만주 인식이 여러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되면서도, 그 이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 근대국가를 건설해야 할 한국인에게 만주가 근대적 민족을 범주로 한 역사와 문명의 기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다. 신문명을 개척하는 “만주

1) Atkins, E. Taylor, *Primitive Selves: Koreans in the Japanese Colonial Gaze, 1910-1945*,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 2.

2)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 서울: 이산, 2003, 52쪽.

대륙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1910년대의 《황성신문》은 “한국이 만주를 발판 삼아 영국이나 일본 등의 문명 수준을 넘어서는 최고의 문명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전망을 제시하였다(172-173). 또한 식민 지배를 경험했던 한국의 엘리트들은 “국권 상실의 상황 속에서 만주를 주권 회복의 역사적 근거지”로서 내세우거나, “조선이 아닌 만주를 민족의 생존과 독립을 실증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담론화하였다(98, 214). 나아가 만주국의 실질적인 구성원이었던 재만조선인들에게는 중국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만주국을 기반으로 한 “민족평등주의”가 요구되기도 하였다(440).

그런데 근대 한국인이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오랑캐[夷狄]로 보던 만주족을 단군의 후예로서 동족”으로 인식하기도 했던 양상들은 당시 한국인의 독특하고 고유한 인식이었다기보다 민족 개념 자체의 관념성이나 유동성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158-159) 또한 바로 이러한 지점이 “민족주의 고토의식”과 “대륙진출론 고토의식”을 동시에 생성해낸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위치가 아니었을까?(417)

IV.

근대 한국인의 만주 인식은 순수성의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디아스포라(diaspora)의 접촉지대를 통해 혼종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앞으로 더욱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확장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 시기 일본인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주 인식 혹은 조선 표상이 그들에게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자의 후속연구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